

## 交流와 會通, 一統과 同和

曹明和(韓國 西原大 名譽教授)

이번 포럼의 주제는 ‘交流’입니다. 그래서 저는 ‘交流’라는 낱말에서 연상되는 저의 몇 가지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漢字文化圈, 혹은 儒敎文化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의 학자들끼리는 漢字語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편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사전적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文面(text)의 辭典的 의미보다 그 文面이 나오게 된 脈絡(context of utterance)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예컨대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도 상황에 따라 상대를 희롱하는 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언어철학에서는 이것을 脈絡主義(contextualism)라고 부르는데, 저는 언어를 맥락주의적으로 인식하는 일이 漢字文化圈에서는 더욱 요구된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락주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交流라는 낱말은 원래 ‘한데 모여서 흐르다’(匯合而流), 또는 ‘섞여 흐르다’(縱橫交錯而流)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파생하여, 사람이 서로 오가거나(來往), 財貨를 서로 주고받거나(交換), 문화가 서로 전파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交流라는 낱말이 대등한 두 主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상대를 나에게 예속시키고자 바라는 쪽에서 交流를 요구한다면, 그때의 交流는 ‘서로 주고받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지요. 사전적인 의미를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인간은 이처럼 언어를 왜곡하기도 하고, 이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혹은 모순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답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각자 나름대로 짐작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더 진행해보겠습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두 주체 사이, 그러니까 상호관계에서 요구되는 소통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관계’라면, 그때의 전달수단이 언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신호가 더 효율적이겠지요. 예컨대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면, 주인은 노예에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짓이나 눈짓처럼 신호만 보내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신호는 물리적인 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던지는 언어도 물리적인 힘 즉, 폭력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모습은 ‘각자 서로 다른 주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주에 하찮은 존재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주체들은 가치 측면에서 대등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대등한 두 주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하게 발휘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다른 민족에게 예측당한 민족의 언어가 시나브로 사라지게 되는 것은 그와 비슷한 이유라고 저는 여깁니다.

우주의 여러 존재들이 이렇듯 각자 서로 ‘다른’ 주체들이면서도 그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까닭은 서로 ‘通’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를 뿐 서로 통하지는 않는다면 우주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서로 다른 각자가 서로 통하면서 지내는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주의 實相입니다. 黃花, 朱實, 翠竹, 靑松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漢字文化圈의 선조들은 우주의 그러한 實相을 일찌감치 인지한 듯합니다. 우주의 그러한 실상을 그들은 ‘會通’이라는 낱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우주의 실상을 원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책인 『역경(易經)』에서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會通’이라는 낱말 역시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서로 존중하는 대등한 주체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會通과, 자신은 主가 되고 他者를 종속시키거나 兼併하려는 쪽에서 언급하는 會通은 그 뜻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저는 언어를 맥락주의적으로 인식하는 일이 한자문화권에서는 더욱 요구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자문화권, 아니 유교문화권 사람들은 말이나 글이 사전적 의미와 달리 사용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살아가면서 잘 알게 됩니다.

문면보다는 그 문면의 쓰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속뜻을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口語에서도 文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精髓라고 할 수 있는 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유교문화권에서 識字人이 되려면 『시경』에 있는 여러 詩들 각각의 문면은 물론 그 속뜻까지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문장이나 詩의 속뜻까지 알아차리는 일은 출세의 수단이기도 했고, 출세한 다음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속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바로 禍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역사에는 舌禍니 筆禍니 하는 사건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군주나 권력자를 비난한 탓에 禍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권력투쟁이니깐요. 그러나 군주나 권력자를 비난할 의도라곤 조금도 없었는데도,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식자인들을 가차 없이 죽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識字人은 말을 하거나, 글을 짓거나, 심지어 생각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자기검열을 해야만 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스승은 자식과 제자에게 ‘입은 禍의 門’이라고 엄중하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침묵은 金’이라고도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害를 줄이고 利를 늘이는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활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대한 꿈을 꾸는 일이라곤 어렵게 만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유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철학이거늘, 사유하고 표현할 때마다 자기검열을 당하니 철학 대신 教條에 대한 訓誥만 열심히 하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사유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때 진정한 평화와 희열을 느낄 수 있거늘, 표현은 물론 사유에도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평화와 희열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이 대목에서 저는 漢字라는 문자에 주의하게 됩니다. 말과 글의 사전적인 뜻과 속뜻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漢字라는 문자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여러 문자들 가운데 매우 독특한 문자인 漢字는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갑골문은 과연 대등한 주체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청각을 시각화한 이미지일까요? 그 질문

에 대한 답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야기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各自 서로 다른 주체들이 함께 모여 會通하는 것이 宇宙의 實相이라는 생각은 多元的 宇宙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다원적 우주관보다는 일원적 우주관이 주류를 이룬 적이 더 많습니다. 우주의 모습을 여러 각자가 ‘會通’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고 여러 각자가 一貫된 질서를 보인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잠깐, 지금부터는 ‘宇宙’라는 용어를 ‘天下’라는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쉬울 듯하니까요. 못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도는 것이 天의 질서이듯이, 天下의 못 인간 또한 天의 질서와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天의 질서와 맞추는 天下의 질서란 모든 일을 군주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天下의 질서를 강조하는 사람이 일찌감치 천하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질서를 따르지 않는 집단을 무력으로 응징하여 자기의 질서로 편입시킵니다. 그것을 天下一統이라고 불렀습니다. 天의 질서를 숭상하는 사람에게 天下一統은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天下一統은 天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天下를 天의 아름다운 질서에 상응시키는 성스러운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天은 무엇일까요?

저는 조금 전, 漢字의 始原인 갑골문은 과연 대등한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인지를 自問하였습니다. 답은 ‘아님’이네요. 갑골문은 왕의 권능을 보이려고 만든 수단입니다. 왕의 권능을 행사하는 儀式인 占의 결과를 적은 것입니다. 占의 결과를 적은 까닭은 왕의 권능이 하늘의 명령임을 입증해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적은 방식은 현대의 아이콘이나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콘을 나열하는 방식은 일방적인 신호 체계이지 상호소통을 위한 체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확보하여 상호소통을 위한 수단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식은 이윽고 고대 중국 문장의 표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 나름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골문에서 ‘天’은 ‘大’ 위에 가로줄이나 네모 형상이 있는 모습입니다. 커다랗고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는 개념을 형상화한 아이콘입니다. 하늘이라는 추상적 공간을 가리키는 아이콘은 아닙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아이콘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나는 죽은 뒤에도 여전히 현실세계를 관장한다.”고 말하고 싶은 왕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왕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피지배자들이 생각한다면, 그래서 왕이 죽기만을 기다린다면, 자신의 권능은 미약해진다고 왕은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란 존재는 죽은 뒤 하늘에서 여전히 현실세계를 관장하게 된다고 피지배자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왕이 만든 개념을 형상화한 아이콘이 바로 天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記表(signifiant)를 적는 부호가 문자인데, 漢字는 아이콘을 부호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자를 흔히 ‘모습을 표현한 문자’라는 뜻으로 象形文字라고 부르는데, 모습이 아닌 이미지(心像)를 형상화한 문자, 그러니까 ‘이미지 문자’ 또는 ‘아이콘 문자’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죽는 왕의 수요가 누적됩니다. 그러자 天이라는 이름은 자연스럽게 先王들이 공존하는 융합체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나아가, 현존 왕은 先王들이 보낸 존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王의 호칭은 天子가 됩니다. 왕의 임무는 天命을 받드는 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天命은 祭라는 의례를 통해서 받는다고 말했고, 반대로 왕이 능동적으로 天에게 묻고자 할 때는 占이라는 儀式을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祭와 占은 왕의 권능을 유지하는 필수 장치였습니다. 그러한 祭나 占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한자의 시원인 갑골문입니다. 한자는 이렇듯 지배와 피지배가 분명히 나뉘는 정치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이미지 부호로서 출발한 문자입니다. 대등한 양자가 交易에 필요한 약속을 표기해두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부호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자문화권에서 天은 이렇듯 창조주도 아니고, 道德律도 아니며, 原理도 아니었습니다. 王權의 원천인 先王들의 존재 형식과 선왕들이 머무는 공간을 아우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현실 권력의 근거를 나타내는 이름이지 피안의 세계를 가리키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殷왕조에서는 帝라고 불렀던 것을 周왕조에 이르러 天으로 바꾸었다는 설명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周武王은 자신의 권능이 殷왕조의 선왕들에게서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었기에 바꾸었겠지요. 왕조가 바뀌는 대목에서 새 왕은 天의 명

령이 바뀌었다고 말해야 했을 것이고, ‘숨이 바뀌다’라는 뜻인 革命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겠지요. 동시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禪讓’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졌겠지요. 이렇듯 한자문화권에서 우주, 아니 천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王이었지 彼岸과 같은 추상세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一統시킨 天下의 질서는 天의 질서처럼 영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얼마간 지나면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상태가 얼마간 지나면 다시 一統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또 분열됩니다. 그렇게 해서 ‘습久必分 分久必습’은 중국사의 패턴이 됩니다. 그 패턴으로 인해 중국사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天下를 天의 질서에 맞추겠다는 신념을 지닌 사람들 때문에 무수한 인민이 죽거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會通을 우주의 실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一統이 아닌 다른 노력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和입니다.

和라는 글자는 원래 소리로서 서로 맞장구치는 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鳴鶴在陰 其子和之”(『易·中孚』)라든가, “叔兮伯兮 倡予和女”(『詩·鄭風』)와 같은 구절이 그 例文입니다. 상대에게 적절하게 맞추어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和睦’이라는 낱말이 그 例이지요. “禮之用 和爲貴”(『論語·學而』)라는 공자의 말이나,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孟子·公孫丑下』)라는 맹자의 말은 和를 강조한 말입니다. 공자는 또한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論語·子路』)라고도 강조합니다. 그 문장에서 同은 一과 같습니다. 공자는 一을 멀리하고 和를 강조했던 것이지요. 一이 아닌 多를 용인하고, 그 多가 和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儒家에서는 맹자 단계까지는 一統이 아닌 和를 강조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天下의 질서를 天의 질서에 맞추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유가는 多의 和가 아니고 一統을 중시하는 儒敎라는 이데올로기로 바뀝니다. 일본이 과거 내세웠던 大東亞共榮이라는 명분도 결국 天下一統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동아시아에 술한 참극만을 낳았을 뿐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一統이라는 세계관보다는 會通과 同和라는 세계관이 우주의 아름다운 모습과 어울리는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一統을 美意識의 표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會通과 同和를 동아시아 미의식의 표준으로 삼자고 말합니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은 儒敎王朝를 무너뜨리고 反儒敎의 기치 아래 세워진 國體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아편전쟁에서 서양에 패배한 뒤 과학기술을 배우자는 洋務運動을 벌이다가는, 과학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제도라는 생각에서 變法自彊運動도 벌이다가, 정치제도 자체보다 그 너머에 있는 문화나 사상이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나머지 신문화운동을 일으키더니, 마침내 말스레닌이즘을 바탕으로 한 신문화 신사상을 추구하는 新中國을 세웠다고 봅니다. 이제 신중국은 아편전쟁의 패배라는 치욕은 씻었다 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신중국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중국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새로운 가치를 다양하게 창조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多의 和로 만들어내는 모범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一帶一路만이 아닌 多帶多路를 창조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傾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曹明和